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국가성장동력으로 활용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전략' 대통령에게 보고

우리 항만 중심의 세계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체계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해 세계 물류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을 보고했다.

해양부는 연평균 14.4%의 성장률을 보이는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을 우리 항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허브화 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같은 전략의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중국의 환발해만권 물류중심화 계획·세계 물류시장의 과점화 등 급변하는 물류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물류국가화를 위해서는 국내 항만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양부가 보고한 물류허브화 전략에 따르면 우선 국제물류서비스의 혁신 및 브랜드화를 통해 특화된 항만서비스를 제공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분야의 보안강화 추세를 활용해 우리의 앞선 IT기술과 보안 분야의 강점 등을 바탕으로 화물 이동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내 항만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해외 항만에서의 신속한 통관 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항만으로 환적화물 유입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확인된

투자수요를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배후단지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급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중국·일본 기업의 경우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 외국인 고용 유연화를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흡수,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금융과 물류의 역량을 결합한 국내 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공격적 인수합병(M&A)으로 세계 물류시장이 과점화되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부채 비율 증가 및 투자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국내외의 풍부한 유동성이 물류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 조사 등을 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을 글로벌 서비스업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물류 허브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의 상호 주행 실현 등 3국이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있는 분야부터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아세안(ASEAN)으로 협력을 확대해 동아시아 물류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